

Case Report / 증례

## 回逆散으로 호전을 보인 아토피피부염의 치험 2례

조소현<sup>1)</sup> · 조은희<sup>2,3)</sup> · 김성중<sup>2)</sup> · 박인해<sup>1)</sup> · 박민철<sup>1,3)</sup>

<sup>1)</sup>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

<sup>2)</sup>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sup>3)</sup>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 Two cases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with *Huini-san*

*So-Hyun Jo*<sup>1)</sup> · *Eun-Hee Jo*<sup>2,3)</sup> · *Seong-Joung Kim*<sup>2)</sup> · *In-Hae Park*<sup>1)</sup> · *Min-Cheol Park*<sup>1,3)</sup>

<sup>1)</sup> Dep. of Oriental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Wonkwang University

<sup>2)</sup> Dep.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onkwang University

<sup>3)</sup>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 : Atopic dermatitis is a type of dermatitis, an inflammatory, relapsing, non-contagious and itchy skin disorder and affecting up to 30% of children in the Korea. In this study, *Huini-san*, which is mentioned in Shanghanlun(傷寒論), and acupuncture treatment on Atopic Disease was investigated.

**Methods** : We have classified the patients according to the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diagnostic system and the patients are treated with *Huini-san*. The severity of Atopic dermatitis was evaluated by SCORAD index, visual analogue scale(VAS) and pictures.

**Results** : After the treatment the SCORAD index and VAS of 2 patients decreased significantly.

**Conclusions** : *Huini-san* and acupuncture treatment has improved the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in this study.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Herbal medicine; *Huini-san*(回逆散); *Sini-san*(四逆散) Shanghanlun(傷寒論)

## I. 緒 論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심한 소양감과 피부건조, 홍반성 습진 등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sup>1)</sup>, 소아에서는 10~20% 가량 성인에서는 1~3% 정도의 유병율이 보고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13)</sup>.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원인 항원과 악화요인의 회피를 위한 환경 관리,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 등을 위주로 하는 약물 요법, 면역조절제를 이용한 면역요법 등이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sup>2)</sup>,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차별화된 치료법이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韓醫學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奶癬, 胎熱, 胎癬, 濕疹, 濕癩, 浸淫瘡, 四彎風 등의 범주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風熱, 脾胃濕熱, 血虛風燥, 血熱, 濕熱溫燥 등으로 나누어 清熱利濕, 祛風止癢, 滋陰養血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다<sup>4)</sup>.

최근 韓醫學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藥物療法과 外治法을 응용하고 있다<sup>5)</sup>. 韓醫學에서 진행된 기존 연구 중 아토피 피부염에 傷寒論 처방을 활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정 등<sup>6)</sup>의 삼출을 주증으로 한 아토피 피부염에 桂枝加黃芪湯 치험 3례, 홍 등<sup>7)</sup>의 大柴胡湯, 半夏瀉心湯을 응용한 치험 1례, 서 등<sup>8)</sup>의 氣血水이론에 근거한 柴胡桂枝湯加味方 치험 1례, 이 등<sup>9)</sup>의 桂枝麻黃各半湯 치험 1례, 전 등<sup>10)</sup>의 소양감을 주증으로 한 아토피 환자에게 黃芪제를 투여한 치험 1례, 윤 등<sup>11)</sup>의 六經診斷體系에 근거한 吳茱萸湯 치험 1례 등이 보고되어 있었으나, 回逆散을 투여한 증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한약을 중심으로 한 한방치료를 통하여 유효한 효과를 거두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교신저자 : 박민철,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부과  
(Tel : 063-859-2821, E-mail : spinx11@wonkwang.ac.kr)  
• 접수 2014/7/2 • 수정 2014/8/12 • 채택 2014/8/19

## II. 證 例

### 1. 증례 1

#### 1) 환자 정보

① 환자 : 류○○, 남자, 13세

② 초진 시 주소

顏面部, 頸部와 肘膝 屈側 부위의 癢痒感, 皮膚 乾燥, 紅斑, 丘疹, 擦過, 出血, 糜爛, 痂皮

③ 발병일

1999년경(4세) → 2012년 3월경 尤甚(12세)

④ 과거력 : 4세경 鼻炎 병발

⑤ 가족력 : 別無

⑥ 현병력

상기환자는 180cm/57kg의 마른 체형의 13세 남환으로 4세경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병발 후, 지속적으로 local 소아과 OPD Tx, 지속적으로 하던 중, 2012년 3월경 중학교 입학 후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성장기를 겪으며 주증상이 더욱 심해져, local 한의원 OPD Tx 하던 중 적극적인 한방 치료 원하여 2013년 03월 30일 본원 외래 來院함.

⑦ 치료기간 : 2013년 03월 30일 - 2013년 11월 13일

⑧ 평가방법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은 SCORAD index<sup>12)</sup>(Table 2)와 癢痒感에 대한 자각적인 불편감을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초진 시 불편감을 10점, 무증상을 0점으로 그 사이를 10단계로 나누어 평가(Table 3)하였으며 사진촬영(Fig. 1-3)을 시행하였으며, 사진 및 진료기록의 학술적 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

⑨ 초진 시 증상

㉞ 大便 : 1일에 2번 대변을 본다. 시원하게 본다. 대변이 무르다.

- ㉠ 小便 : 소변을 시원하게 본다. 소변 본 후, 소변이 팬티에 자주 묻는다. 소변을 참기 어렵다.
- ㉡ 寒熱 : 추위를 못 참는다.
- ㉢ 頭面 :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고, 기침이 주로 나온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자주 있다.
- ㉣ 皮膚 :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많다.
- ㉤ 汗出 : 겨드랑이에서만 땀이 난다.
- ㉥ 食慾 : 입맛이 좋다. 허기를 참기가 힘들다.
- ㉦ 消化 : 소화가 잘 된다.
- ㉧ 睡眠 : 잠을 잘 잔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 한참동안 몽롱하다. 평소에 머리가 맑지 않고 자꾸 졸리다.
- ㉨ 口渴 : 찬 물을 좋아한다. 찬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질 않는다. 식사 할 때 국이나 물 없이 못 먹는다.
- ㉩ 胸部 : 한숨을 잘 쉰다.
- ㉪ 手足·身體 : 발이 차갑다.

2) 치료 방법

① 藥物治療

2013년 03월 23일 - 2014년 02월 05일 (총 146일 약 200첩) : 回逆散(Table 1)을 하루 1.4첩 기준으로 다려 1일 3봉 120cc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하도록 지도하였다.

Table 1. Prescription of *Huini-san*

Name of natural medicine (herbal medicin)	Weight(g)
<i>Glycyrrhizae Radix</i> (甘草)	4.5g
<i>Bupleuri Radix</i> (柴胡)	4.5g
<i>Ponciri Fructus</i> (枳實)	4.5g
<i>Paeoniae Radix Rubra</i> (赤芍藥)	4.5g
Total Amount	18g

② 針治療

치료에 사용한 침은 일회용 stain-less 毫鍼(우진침, 0.30×40mm)을 사용하여 자침하였다.

- ㉠ 2013년 03월 30일 - 2013년 05월 21일 : 총 4회, 治療穴位는 左側 胃勝格을 刺針하였고 15분 동안 留鍼하였다.
- ㉡ 2013년 06월 15일 - 2013년 07월 13일 : 총 2회, 治療穴位는 左側 胃正格을 刺針하였고 15분 동안 留鍼하였다.
- ㉢ 2013년 08월 30일 : 총 1회, 治療穴位는 左側 肺勝格을 刺針하였고 15분 동안 留鍼하였다.
- ㉣ 2013년 10월 04일 - 2014년 11월 13일 : 총 2회, 治療穴位는 左側 胃正格을 刺針하였고 15분 동안 留鍼하였다.

③ 外治療法

보습관리를 위하여, 카렌둘라오일, 알로에에센스를 도포하였다.

3) 치료 경과

① 평가 지표의 변화

Table 2. Clinical Progress of SCORAD index

Date	2013.03.23.	2013.07.21.	2013.11.13.
Extent Criteria	25.5	14	1
Intensity Criteria	13	21	2
Subjective Criteria	Pruritus	5	0
	Sleep loss	5	0
SCORAD index	60.6 (severe)	23.8 (moderate)	7.2 (mild)

Table 3. Clinical Progress of VAS

Date	2013.03.23.	2013.07.21.	2013.11.13.
Vas	10	0	0



Fig. 1. 2013. 03. 23.



Fig. 2. 2013. 07. 13.



Fig. 3. 2013. 11. 13.

## 2. 증례 2

### 1) 환자 정보

- ① 환자 : 고○○, 남자, 19세
- ② 초진 시 주소  
진신적인 癢痒感, 皮膚乾燥와 兩側 上下肢의 紅斑, 丘疹, 擦過, 出血, 糜爛, 痂皮, 滲出 소양감으로 인한 수면장애
- ③ 발병일  
1998년경(6세) → 2011년 10월경 尤甚(19세)
- ④ 과거력 : 척추측만증
- ⑤ 가족력 : 別無
- ⑥ 현병력  
상기환자는 165cm/55kg의 마른 체형의 19세 남환으로 약 6세경 이사 후 아토피피부염이 발생

하여, 약 15년간 서울대병원, 전북대 병원 DER 및 local 소아과, 한의원 등에서 수차례 외래 치료 받으며 주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외 용 연고 치료 하던 중 2011년 10월경 심한 스트레스 겪은 뒤 local OS 치료 후, 주증증이 더 심해진 환자분으로 적극적인 한방 치료 원하여 2011년 11월 26일 본원 외래 來院함.

- ⑦ 치료기간  
2011년 11월 26일 - 2013년 04월 05일
- ⑧ 평가방법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은 SCORAD index<sup>12)</sup>(Table 4)와 癢痒感에 대한 자각적인 불편감을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초진 시 불편감을 10점, 무증상을 0점으로 그 사이를 10단계로 나누어 평가(Table 5)하였

으며 사진촬영(Fig. 4-6)을 시행하였으며, 사진 및 진료기록의 학술적 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

⑨ 증상

- ㉠ 大便 : 2일에 1번 대변을 본다. 대변을 보고 난 후 시원하다.  
아랫배에 가스가 잘 찬다. 대변을 잘 참지 못한다.
- ㉡ 小便 : 1일 3~4회.
- ㉢ 寒熱 : 추위를 많이 탄다.
- ㉣ 頭面 : 잘 어지럽다.
- ㉤ 皮膚 : 피부가 건조하다. 피부가 긁히면 잘 빨개지고 잘 안 없어진다.
- ㉥ 汗出 : 땀이 잘 나지 않는다. 땀을 내면 지친다.
- ㉦ 食慾 : 입맛이 좋다. 허기를 참기가 힘들다. (1일 2끼.)
- ㉧ 消化 : 식후 소화가 잘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자주 배가 아프다. 차멀미가 심하다.
- ㉨ 睡眠 :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에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깬다. 수면시간은 1일 10시간 가량.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한참 몽롱하다. 하품을 잘 한다. 평소애 머리가 맑지 않고 자꾸 졸리다.
- ㉩ 口渴 : 찬 물을 좋아한다. 찬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다. 입안이나 입술이 마를 때가 자주 있다. 식사 할 때 국이나 물 없이 못 먹는다.
- ㉪ 胸部 : 자주 심장이 두근거린다.
- ㉫ 手足·身體 : 손발이 차갑다. 피곤할 때, 몸 어딘가 근육이 잘 떨린다. 피곤하면 몸살이 자주 생긴다.
- ㉬ 關節 : 뒷목, 등, 허리 아프다.

2) 치료 방법

① 藥物治療

- ㉠ 2011년 11월 26일 - 2013년 01월 23일 (총 430첩 215일) : 다양한 처방을 응용하였으며,

1달 이상 복용한 처방은 桂枝二越婢一湯, 麻杏甘石湯, 防己茯苓湯, 黃耆芍藥桂枝苦酒湯이 있다.

- ㉡ 2013년 01월 23일 - 2013년 04월 05일 (총 84첩 42일) : 回逆散(Table 1)을 하루 2첩 기준으로 다려 1일 3봉 120cc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하였다.

② 針治療

치료에 사용한 침은 일회용 stain-less 毫鍼(우진 침, 0.30×40mm)을 사용하여 자침하였다.

- ㉢ 2011년 11월 26일 - 2012년 05월 14일 : 총 6회, 治療穴位는 左側 肺正格을 刺針하였고 15분 동안 留鍼하였다.
- ㉣ 2012년 06월 09일 - 2012년 09월 07일 : 총 2회, 治療穴位는 左側 大腸正格을 刺針하였고 15분 동안 留鍼하였다.
- ㉤ 2012년 09월 28일 - 2013년 02월 13일 : 총 6회, 治療穴位는 左側 肺正格을 刺針하였고 15분 동안 留鍼하였다.
- ㉥ 2013년 04월 05일 : 총 1회, 治療穴位는 右側 胃勝格을 刺針하였고 15분 동안 留鍼하였다.

③ 外治療法

보습관리를 위하여 천연한방바디크림, 카렌듈라 오일, 알로에에센스를 도포하였다.

3) 치료 경과

① 평가 지표의 변화

Table 4. Clinical Progress of SCORAD index

Date	2011.11.26.	2013.01.23.	2013.04.05.
Extent Criteria	85	61	36.5
Intensity Criteria	18	11	4
Subjective Criteria	8	3	0
SCORAD index	88 (severe)	53.7 (severe)	21.3 (moderate)



Fig. 4. 2011. 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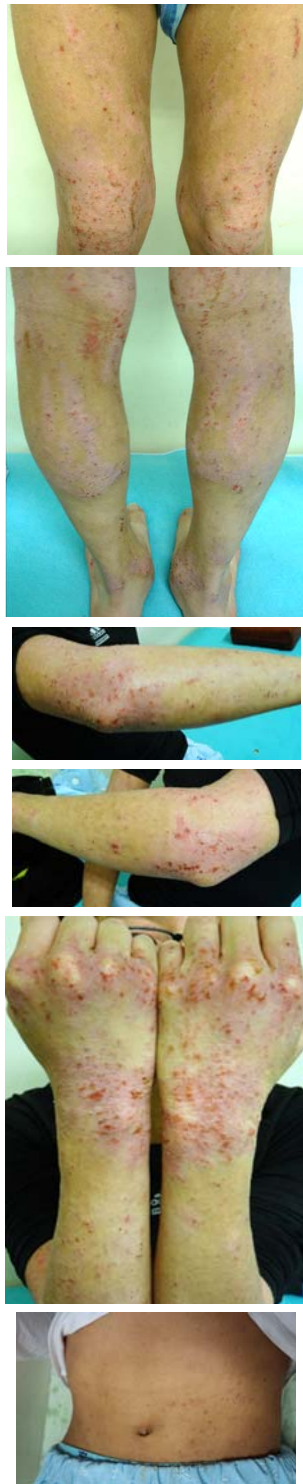


Fig. 5. 2013. 0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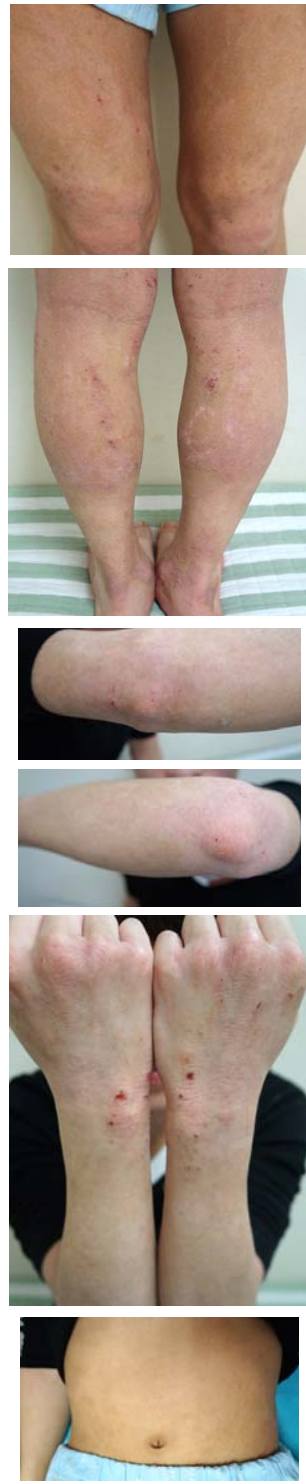


Fig. 6. 2013. 04. 15.

Table 5. Clinical Progress of VAS

Date	2011.11.26.	2013.01.23.	2013.04.05.
Vas	10	5	0

### III. 考察 및 結論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광범위한 연령층에 나타나며 심한 가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만성 재발성 알레르기성 습진으로<sup>1)</sup>, 발생기전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으나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으며, 원인으로서는 알레르겐 및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대기오염,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항원에 대한 노출의 증가, 생활방식의 서구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증가 등이 제시되고 있다<sup>2,14,15)</sup>.

진단에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은 특이한 검사소견이 없기 때문에 주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다양한 임상 양상을 종합한 한국인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있다<sup>6)</sup>.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여,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는데<sup>15)</sup>, 급성기에는 심한 소양감과, 홍반성 구진, 수포, 삼출 등이 발생하고 이차 감염이 흔하다. 아급성기에는 찰과, 홍반성 혹은 인설성 구진, 판 등이 발생하며, 만성기에는 반복된 소파로 인한 태선화가 일어나며, 모든 단계에서 환자의 피부는 건조하고 윤기 없는 상태가 관찰된다<sup>14)</sup>.

현재 아토피피부염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바가 없고, 악화요인에 대한 회피, 피부 청결과 피부 장벽기능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습제의 사용, 염증조절을 위한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 요법, 소양감 조절을 위한 항히스타민제 등을 주로 사용하며, 추가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면역조절제나 면역억제제 이용한 면역요법이나 광선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sup>15)</sup>, 위의

치료를 장기간 시행했을 때의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어<sup>17)</sup>, 한방치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韓醫學에서 아토피피부염은 奶癬, 胎熱, 濕瘡, 浸淫瘡, 四彎風의 범위에 해당하고, 《諸病源候論》<sup>18)</sup>에 “小兒面上 癬皮如甲錯起乾燥 謂之乳癬. 言兒飲乳 乳汁 漬汚兒面 變生此證”이라 하여 그 증상과 병리에 대해 처음 언급되어 있다. 치료는 크게 清熱利濕, 滋陰養血, 健脾除濕의 처방에 따른 처방을 응용하며, 그 외에 다양한 外治法과 鍼灸療法, 調理法 등을 시행하고 있다<sup>19)</sup>.

韓醫學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중 약물 치료에 중점을 둔 연구 가운데 傷寒論 처방을 투여한 임상 연구로는 정 등<sup>6)</sup>과 전 등<sup>10)</sup>이 桂枝加黃芪湯을 주로 적용하였으며, 홍 등<sup>7)</sup>은 大柴胡湯, 半夏瀉心湯을 응용하였고, 서 등<sup>8)</sup>은 柴胡桂枝湯을, 이 등<sup>9)</sup>은 桂枝麻黃各半湯을, 윤 등<sup>11)</sup>은 芫荽黃湯을 응용하였으나, 回逆散을 투여한 증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回逆散은 疏肝理脾하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관한 기존의 韓方 연구 중 실험 연구<sup>20-5)</sup>는 대부분 간 손상과 관련되어 있고, 증례보고는 장<sup>26)</sup> 등과 장<sup>27)</sup> 등이 중풍 재발기 환자의 客症에 응용한 예가 있었으나 피부질환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回逆散은 《傷寒論》<sup>28)</sup>에 처음 기재되어 康平本 少陰病編 318조에 15자주로 “少陰病, 其人或欬, 或悸, 或小便不利, 或腹中痛, 或泄利下重者, 回逆散主之.”이라 언급되어 있다. 이 등<sup>29)</sup>은 환자의 몸 상태는 늘 가변적이거나 환자가 호소하는 主訴症과 疾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잘 살피면 提綱을 기준으로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의 환자를 6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脉微細, 但欲寐”의 모습이 관찰되면 少陰病으로 진단하고 상기의 조문을 충족시키는 경우 回逆散을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증례 1은 초진 시 顔面部, 頸部와 肘膝 屈側 부위의 癢痒感, 皮膚乾燥, 紅斑, 丘疹, 擦過, 出血, 糜爛,

痲皮을 호소하였고, 특히 兩肘 屈側部를 완전 신전 시 따라가워서 팔을 피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SCORAD index 점수는 60.6점이었다. 상기 환자는 약 1년 전부터 아토피피부염이 심해진 환자로 중학교 진학 후 부족해진 수면량으로 인해 잦은 피로감과 졸림을 호소하였으며, 학기 초 및 시험 등의 스트레스 시 평소보다 더 움직이기 싫어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상기 주소증이 심해진 것을 고려하여 少陰病으로 진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배뇨횟수가 1일 2-3회로 이전 4-5회 비해 감소하였고, 코막힘, 재채기 증상의 비염이 심해졌으며 평소 대변이 약간 무른 편인 경향을 각각 “欸”, “小便不利”와 “泄利下重”로 보아 回逆散을 투여하였다.

回逆散 복용 25일 후, 2013년 4월 23일 내원 시 소양감이 초진 대비 Vas 2-3으로 줄었고 피부의 따끔함이 감소하여 兩肘 屈側部 완전 신전이 가능해졌으며, 코막힘, 재채기가 완화되었다. 복용 40일 후, 전체적으로 紅斑, 丘疹, 擦過, 出血이 감소하였고 특히 頸部 병변이 깨끗해졌는데, 수확여행을 다녀온 후 호전속도가 빨랐다고 하였다. 복용 53일 후, 친척집에서 4일간 방에서 게입하며 지낸 후 소양감이 Vas 6으로 심해지며 전반적으로 頸部와 肘膝 屈側部の 擦過, 出血, 丘疹이 악화되었고, 소변 횟수는 1일 3회로 여전히었다.

복용 78일 후 소양감이 Vas 0으로 굵은 일이 거의 없어서 頸部는 미약한 紅潮, 乾燥感만 보였고, 肘膝 屈側部는 擦過, 丘疹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膝部에 미약한 色素沈着이 관찰되었다. 복용 106일 후 소양감이 거의 사라졌고 紅潮, 紅斑이 전체적인 개선을 보였다. 또한 소변 횟수가 1일 4-5회로 늘어났고, 기존 1일 1-2회 이던 배변 횟수가 1회로 줄면서 배변이 덜 물러졌으며, 비염 증세는 재채기만 간혹 남아있었다. 복용 140일 후 肘膝 부위에 땀이 날 때만 약간의 소양감이 발생하였고, 환절기 때 간혹 재채기를 한다고 하였다.

복용 189일 후 전체적인 병변이 거의 소실되었고, 膝部의 色素沈着이 개선되었다. 복용 224일 후, 2013년 11월 13일 내원 시 Vas 1-2의 미약한 소양감이 있

었으나 이차적인 손상은 없어 回逆散을 21일치 처방하고 치료를 종료하였다. 2014년 02월경 내원 시 환자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증례 2는 초진 시 전신적인 癢痒感, 皮膚乾燥와 兩側 上下肢의 紅斑, 丘疹, 擦過, 出血, 糜爛, 痲皮, 滲出 호소하였고 SCORAD index 점수는 88점으로, 추위를 많이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며, 몸살이 자주 생기는 경향을 고려하여 桂枝二越婢一湯을 투여하였다. 이후 약 215일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麻杏甘石湯, 防己茯苓湯, 黃耆芍藥桂枝苦酒湯 등을 투여하였고, 한약치료 이외에 외래 내원 시 침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초기 환자를 肺燥에 의한 증상으로 파악하여 肺正格,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심하여 大腸正格, 肺虛에 의한 燥症으로 보아 胃勝格<sup>30)</sup> 등의 침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2013년 1월 23일 재진 시 전체적인 피부톤이 개선되고 滲出이 완화되며 SCORAD index 점수가 53.7점으로 낮아졌으나, SCORAD index 상 여전히 severe한 단계였고, 중등도 이상의 紅斑, 丘疹과 심한 癢痒感으로 인한 擦過, 出血, 糜爛, 痲皮를 호소하였기 때문에 일정 단계 이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방을 고려하였다.

환자는 평소 움직이기를 싫어하여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것을 귀찮아하였고, 여가시간에 잘 돌아다니려 하지 않고 쉬는 경향이 있었는데, 본원 치료 시작 약 3개월 경, 대학 진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코골이가 심한 룸메이트 때문에 불량한 수면상태를 겪으면서 종일 졸려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상기 주소증이 더욱 심해진 것을 고려하여 少陰病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배가 자주 아프거나, 식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그리고 소변 횟수가 1일 3-4회로 적은 점을 각각 “悸”, “腹中痛”과 “小便不利”로 파악하여 2013년 01월 23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回逆散을 투여하였다.

回逆散 14일치 복용 후 2013년 2월 13일 내원 시 癢痒感이 전주 대비 4/10으로 감소하며 擦過, 出血이



줄고, 紅斑, 丘疹의 정도가 감소하였다. 回逆散 28일 치 복용 후 2013년 4월 5일 내원 시 소양감을 거의 호소하지 않았으며, 擦過, 出血, 癩皮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미약한 紅斑, 丘疹이 손등과 손목부위에 남아있었고, 전신적인 피부건조와 기존 下肢部에 있었던 擦過로 인한 癩皮가 남아있었다. 전체적으로 수면상태가 좋아지면서 피로감이 개선되었고, 스트레스 시 생기는 腹痛이나 식후 소화 안 되는 느낌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回逆散을 14일치를 추가로 처방하고 치료를 종료하였다. 2013년 06월경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치료 종료 후 환자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간혹 腹痛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아토피피부염은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상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끈기 있게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 점점 중증화, 난치화 되는 경우가 많고, 중등도 이상 환자의 30% 가량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sup>31)</sup>.

본 증례에서 少陰病으로 진단된 환자 2명에게 기침이나 가슴 두근거림, 혹은 소변 횟수의 감소, 혹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설사 등의 증상이 심해질 때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양상을 확인하여 回逆散을 투여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아토피피부염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傷寒論》<sup>28)</sup> 318조 증상의 개선 외에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수면상태의 호전과 힘이 없고 소극적이던 태도가 개선됨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는 回逆散을 피부질환의 치료에 응용한 사례가 없었으나, 위의 증례를 통하여 少陰病으로 진단된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주수증이 악화와 더불어 提綱상태와 해당 조문의 신체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응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단 2건의 증례라는 것과 사진 촬영이 일관되지 못한 점, 기타 혈액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외용제와 침구치료가 병행되어 각각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또한 검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병한 지 10년 이상 된 만성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한약을 중심으로 한 한방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검증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Reference

1. Kay J, Gawkrödger DJ, Mortimer MJ. The prevalence of childhood atopic eczema in a general population. *J Am Acad Dermatol*. 1994;30:35-9.
2. Park MC, Kim JM, Hong CH, Hwang CY. A Literature Study about the Comparison of Oriental-Occidental Medicine on the Atopic Dermatitis.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2;15(1):226-52.
3. Park Y. Status of clinical practice o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topic dermatitis in Korea: a questionnaire survey of physicians. *The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13;1(3):257-65.
4. Roh SS. (primary color) *Dermatology*. Seoul: Corporation IBC Enterprise. 2006:11-2,111-21, 653, 739.
5. Seo MS, Kim KJ. The Study on Atopic Dermatitis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Ophthalmology &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9;22(3): 108-21.
6. Jung JY, Kim YB. Three Cases of Atopic Dermatitis,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4;17(1):131-9.
  7. Hong SM, Hur IH, Byun HS, Sim SY, Kim KJ. A case study on Atopic Dermatitis with the Treatise on Febrile Diseases.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7;20(2): 230-9.
  8. Hong SM, Hur IH, Sim SY, Kim KJ. A case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with Sihogje-tang.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8;21(3):215-25.
  9. Lee JG, Kim HJ. A clinical case of Atopic Dermatitis with Gyemagakbantang. Semyung Uni. 2008;11:15-28.
  10. Jeon SK, Lee NJ, JKong JH. A Clinical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Sanghan-Geumgwe. 2012;4(1):75-82
  11. Yun SM, Im EK. A Case Report of Atopic Dematitis treated by Osuyu-tang (Wuzhuyu-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Sanghan-Geumgwe. 2013;5(1):85-92
  12. European Task Force on Atopic Dermatitis. Severity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the SCORAD index. Consensus Report of the European Task Force on Atopic Dermatitis, Dermatology. 1993;186(1):23-31.
  13. Schultz-Larsen F, Hanifin JM. Epidemiology of atopic dermatitis. Immunol Allergy Clin North Am. 2002;22:1-24.
  14. KDA textbook editing board. Dermatology. 5th edition, Seoul:Ryo Moon Gak. 2008:170-8.
  15. Asthma and Allergic Disease. Seoul:Ryo Moon Gak. 2012:399-415.
  16. Park YL, Kim HD, Kim KH, Kim MN, Kim JW, Ro YS, et al. Report from ADRG : A Study on the Diagnostic Criteria of Korean Atopic Dermatitis.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2006;44(6):659-63.
  17. Hur IH, Hong SM, Um YS, Byun HS, Sim SY, Kim KJ. A Case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Exteral therapy.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6;19(3): 201-8.
  18. Chao YF. Chao Shi Zhy bing Yuan Hou Lun. Shanghai:Jiwenshuju. 1965:505.
  19. Text of Traditional Korean Dermatology & Surgery. Busan:Sunwoo publishment co. 2007:355-61.
  20. Jung SY, Park SD, Park WH. The effect of the Water extract of Sayeuksan, and Shiho, Kamcho against CCl<sub>4</sub> -induced hepatotoxicity in rat. The Journal of DongGuk Oriental Medicine. 1996;5(1):53-77.
  21. Shin HS, Kweon YM, Park SD. Antidepressant effect of Sayuksan and its influence on monoamines of depression model rats. Korean Journal of Herbology. 2004;19(2):71-82.
  22. Kim SW, Kim HW, Cho SI, Yun YC. Effects of Sayeoksanhap-Pyeongweisan- Gamibang(SPG)

- on Hepatological Changes in Animals Damaged by CCl<sub>4</sub>,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7; 24(4):197-207.
23. Kim HW, Jeong BH, Kim GY, Kim YK, Baek JW, Cho SI, Effects of oral administration and herbal acupuncture with Sayeoksanhap-Pyeongweisan-Gamibang(SPG) on gene expression in rats damaged by CCl<sub>4</sub>, Korean Journal of Herbology, 2007;22(2): 163-8.
24. Kim HW, Kim SW, Cho SJ, Kim BY, Yun YC, Cho SI, Effects of Sayeoksanhap-Pyeongweisan-Gamiban(SPG) on hematological changes in animals damaged by CCl<sub>4</sub>, Korean Journal of Herbology, 2007;22(2):169-74.
25. Cho SI, Kim HW, Kim SW, Yun YC, Effect of A Combined Prescription on Liver Injury of Rats by CCl<sub>4</sub>, Korean Journal of Herbology, 2006;21(3):69-74.
26. Jang WS, Oh YS, Lee SY, Oh JH, Jeon YY, Park CS, Park CG, Two Cases of minor symptom of stroke patient Treated with Sayeok-san Gamibang. The Korean Journal of Joongpoong, 2003;4(1):53-9.
27. Jang WS, Back KM, Cheon WH, Chung IK, Two Cases of Minor Symptom of Stroke Patient Treated with Sayeok-san, The Korean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2010;35 (2):19-27.
28. Lee SI, Shin Gobangchancha, Seoul:Koonja publishment co, 2012:342.
29. Lee SJ, Lim JE,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3.
30. Saamchimbeobsusanglok, Choenan:Chorakdang, 2007:269,283,353
31. Oh JW, Recent situation of the management of atopic dermatitis,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12;32(1):14-5.